

완

다원적 대학과 교수의 천의 얼굴

이 광 주

인제대 사학과 교수



1. 상아탑의 교수들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편찬한 『아카데미 사전』의 1694년판은 ‘철학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원인·원리에 의해 결과를 인식하고자 하는 자. … 또 번거로운 세상살이를 피해 조용히 숨어서 사는 현명한 사람도 철학자로 불리운다. … 그리고 때로는 정신적 자유사상에 의해 시민 생활의 일반적인 의무나 책무를 초월하는 사람도 보통 그렇게 불리운다.”

17세기 말기의 위와 같은

지성사상의 대학과 교수상

1. 중세의 방랑교사와 그 후예들
2.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속의 대학과 아카데미(상, 하)
3. 이데올로기 시대와 학문의 자유
4. 베를린 대학과 호모 아카데미쿠스(상, 하)
5. 다원적 대학과 교수의 천의 얼굴

‘철학자’ 像은 그대로 동·서양 전통사회의 學者像, 즉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위상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제1차 대전 전후만 해도

독일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이 교수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면 “훌륭한 일에 관련된 이가 왜 정치에 손을 댈까.”하고 의아해 했다고 한다. 학자는 일반 시민과 엄격히 구별되므로, 그는 사회나 정치의 세계와는 담을 쌓고, 순수 정신의 왕국에 몰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822년 베를린 대학의 한 축하연에서 대학 평의회는 축사를 라틴어로 하기를 고집하였다. 대학인은 라틴어밖에 모른다는 명분에서였다. 그러나 축사를 하게된 역사학 교수 라우머는 금기를 깨고 독일어로 연설하였다. 그로부터 대학은 서서히 독일어를 쓰게

되었다. 의학의 임상 강의도 겨우 1830년대 중반부터 본의아니나마 독일어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학생들이 충분히 라틴어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B.C. 2~1세기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성립된 고전 라틴어는 중세말에 이르기까지 상류사회 교양인의 언어였으며 교회와 대학의 공용어였고 그리고 학자의 언어였다. 근세에 이르러 각국에서 국어가 제자리를 찾은 뒤에도 대학과 학자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라틴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학자의 용어로서의 라틴어!— 그것은 학자와 일반 시민 사이의 벽을 상징했다고 할 것이다.

라틴어와 더불어 대학을 일반 시민사회와 구별짓는 또하나의 상징으로서 아카데미 드레스, 즉 가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운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직업이 세 가지 있다. 재판관과 성직자와 학자이다. 가운은 입고 있는 사람의 정신적 성숙과 판단의 자율성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나타낸다. 가운은 이들 세 가지가 서로 관련되는 직업 정신의 독립을 의미한다. 행동을 강요받거나 압력에 굴해서는 결코 안 되는 직업이다.

재판관은 재판소 그 자체이고 성직자와 신도는 교회 그 자체이며 또 교수와 학생은 대학 그 자체이다. … 이들은 그들 기관 그 자체이며 그러므로 … 그 기관에 대해 또 그 기관 속에 특권을 지닌다.” 라고 역사가 칸토로비치는 말한 바 있다.

의미심장한 이 구절을 역설한 바 있는 이 고명한 역사는 1949년 매마침 제2차 대전 뒤 냉전기에 이른바 매카시즘의 광풍이 미국의 정계와 지식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 그가 제직하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러분교에서도 대학 평의회가 교수에 대해 ‘충성서약’, 즉 공산주의적 파괴 활동을 행하는 정치 집단에 속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서약할 것을 요구하던 시절, 칸토로비치는 이 충성서약의 강요를 비

판하는 성명서를 대학 평의회가 있는 건물에서 낭독하였다.

칸토로비치 자신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때 학문과 학문하는 자의 신성 불가침에 대한 그의 믿음과도 같은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날 ‘대학’은 ‘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조합’이라는 語源 그대로 ‘학자의 공화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속세로부터 엄격히 구별되고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상아탑’으로 일컬어졌다. 그리고 이 상아탑에는 일반 시민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풍기는 教授像을 지닌 호모 아카데미쿠스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수들은 어떠한가.

2. 교수의 갖가지 얼굴

최초의 미국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에머슨은 1837년 하버드에서 행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학자가 “일시적인 편안함을 찾아 정치나 번잡한 문제에 관해 생각하기를 회피하고 꽃밭이나 현미경 혹은 詩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동이 없는 학자는 아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사상은 결코 열매를 못 맺고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대학이나 책은 발에서나 일터에서 만든 말을 베끼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적 지성은 서적을 위한, 학문만을 위한 학문과 학자를 경계하였다.

“행동은 자원이며 사람은 언제나 생활한다는 자원을 지닙니다.” “학자는 자기 일만을 생각하고 급급해 하는 자가 아니라 만인을 위한 뛰어난 사상에 의해 사는 자입니다.”

대중 산업사회의 도래에 앞서 에머슨은 새로운 지식인상, 학자상을 예고하였던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을 지낸 클라크 커는 바람직

한 總長像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총장은 학생에게는 벗이며 교수에게는 동료요 졸업생에 대해서는 ‘좋은 친구’, 이사들에게는 건전한 경영자이며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훌륭한 연설가이고 재단이나 정부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기민한 교섭자요 주 의회에 대해서는 정치가가 되고 산업계, 노동계, 농촌의 이해자이며, 기부자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외교관이 되고… 신문 기자에게는 스포크스맨,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는 훌륭한 학자이며 주나 전국적인 입장에서는 공복, 오페라나 축구 경기에도 똑같이 박수를 보내고, 훌륭한 인격자이며 좋은 남편이요 아버지이며 부지런한 교회 신도여야 한다.”

커가 바라는 총장상은 고매한 인격자로서 카리스마적 신뢰와 존경을 받은 것으로 족했던 — 그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임이 전제되는 경우가 적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 지난날 총장의 위상과는 얼마나 판이한가. 오늘날의 총장에게 요구되는 팔방미인과 같은 다재다능함은 어쩌면 거의 그대로 오늘날의 교수들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날의 교수는 학생에게는 좋은 교사이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는 부지런한 연구자이면 족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수는 교사이자 연구자인 동시에 때로는 조직과 그룹의 관리자이며 조정자이고 또 때로는 유능한 협상자로서 정치가와 외교관의 재능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의 대변인이요 선동가인 동시에 사교가여야 한다. 천의 얼굴을 지녀야 할 현대의 교수상, 그것은 오늘날 대중 산업화 사회의 멀티버시티, 즉 多元的 大學이 지난날의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와 판이하게 다른 복잡다기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사실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날의 교수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 멀티버시티의 특성과 그것이 낳은 새로운 대학 문화에 관해 생각해 보자.

3. 대기업과 연방정부와의 ‘공생관계’

다원적 대학에 앞서서 주립대학이 일찍이 사회 속의 대학의 개방을 내세운 바 있거니와 1892년에 출범한 시카고 대학은 컬리지 교육, 직업적인 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향하여 그 다원적인 구조와 기능은 초대 총장인 하퍼가 언명하였듯이 대학의 기능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였다. 시카고 대학에 앞서서 세워진 뉴욕의 코넬 대학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학문 분야의 교육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을 나는 만들 것이다.”라고 말한 창립자의 뜻을 받들어 ‘만능 교과목의 이념’(the idea of ‘all-purpose’ curriculum)을 구체적으로 실험함을 학풍으로 삼은 바 있다. 그리하여 코넬 대학은 대담한 개방 정책을 단행하여 공학부에 중점을 두면서 제1차 대전 뒤에는 가정학부, 교육학부를, 1940년대에 들어서는 영양학부, 간호학부, 경영·행정학부 및 산업·노동 관계학부를 설치한 데 이어 제2차 대전 뒤에는 호텔경영학부까지도 개설하여 학계는 물론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학부의 개설은 전통적인 대학과 학문의 개념을 뒤집어 놓았다.

다원적 대학은 그 대중적이며 다양한 교과목 시사하듯이 대중 대학(mass university)이다. 대중 대학으로서 다원적 대학의 대표적인 것은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미국의 기술·산업화의 급속한 고도 성장에 발맞추어 1868년에 창립되었다. 그것은 커 총장 시대(1958~67)에 이미 9개 캠퍼스에 1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거느린 미국에서도 제일 큰 규모의 대학이다. 교직원 수만도 4만을 헤아리고 강좌 수는 놀랍게도 1만에 가깝다. 그 시설은 IBM사 이상으로 다원

화되고 1백 개 이상의 연구소, 50개국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지냈다. 10만이 넘는 학생 중 3만은 대학원 학생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특징은 그 맘모스적 규모보다도 산업사회와의 긴밀한 공생관계라고 할 것이다. 다원적 대학은 대학이라기보다도 거의 표현 그대로 '두뇌의 도시'(idiopolis)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다원적 대학의 정착은 제2차 대전을 계기로 시동되는 연방정부의 방대한 과학·기술 계획의 요청과 시기를 같이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대학의 이른바 '산학협동'이 더욱 그것을 촉진시켰음은 물론이다.

대기업은 이미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대학사상 전례가 없을 만큼 대학의 후원자가 되었다. 스탠퍼드 대학과 시카고 대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1913), 코먼웰스 재단(1918) 및 포드 재단(1936) 등 많은 재단이 또한 과학 연구를 비롯한 학술 문화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런데 기업에 의한 대학 지원은 필연적으로 그에게 대학 경영과 관리에의 길을 열어 주는 결과를 낳았다. 역사가인 찰스 부부는 "19세기 말 미국 고등교육의 이사 명부를 보면 회사의 인명록과도 같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대학에 기업 자금이 들어오고 기업가가 대학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산업 엘리트를 양성하는 일이 점차 대학의 최대 기능이 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총장에게 기대된 '조정자이며 뛰어난 경영의 재능'은 점차 교수들에게도 요구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와 교육의 기관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 대기업의 논리가 요구되는 다원적 대학, 비즈니스와 학문이라는 두 개의 대조적 문화가 조정되고 조화되어야 할 대학 사회. 거기에서 교수에게는 비즈니스맨의 재능이 또한 기대됨은 결코 지나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대학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은 대학의 권력구

도는 물론 연구와 교육의 영역에까지도 일대 변화를 일으켰다. 대학의 기부금 처리는 그 주도권이 기증자 편에 있었다. 그 결과 대학 경영의 열쇠는 총장의 책임보다도 기업에서 파견된 이사진의 손에 넘어갔다.

대학 경영과 관리의 주도권을 손에 넣은 기업 계열의 이사진과 그들의 경영 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 총장 밑에서 대학은 점차 그 체제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새로운 풍토 조성은 20세기 전후 기술혁명과 때를 같이하여 출현한 신설 대학에서는 물론 전통적 학풍이 계승 발전된 동부의 명문대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좋은 예로 20세기초 하버드 대학은 지방 세벌 출신인 로웰(A. L. Lowell)을 총장으로 맞아들이고, 또한 가장 역사가 짧은 경영학 전문대학원이 법학·의학의 전문대학원과 더불어 어느새 '빅 3'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에 반해 지난날 주류를 이룬 신학 전문대학원은 교육학 전문대학원과 더불어 하위 그룹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개학 이래 하버드의 자랑이던 물리학 대학원의 교수는 그 높은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중간 그룹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대학 침투가 불러일으킨 대학 변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수 부문의 연구 편중과 교육의 부진 현상이다. 교육의 부진은 재정에도 반영되어 하버드의 경우 연간 전체 예산의 1/8만이 교육 예산이었다. 하버드는 이미 1940년대에 교수회의에서 '교육 포기'를 선언한 바 있거니와 그 놀라운 결정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2차 대전 뒤 냉전 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특히 대학 사회에서 심각하였다.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교수와 교수 사이를,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를 갈라 놓았다. 사상적 갈등을 비롯한 연이은 학원 분쟁은 일체감이나 연대의식의 부재 현상을 오늘날 대학

의 특징으로 만들었다. 교육이란 대학 공동체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그 전제 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닐까.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일체감 부재와 더불어 교육 침체 현상의 진범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맘모스화와 연구 편중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대기업 주도의 고도 과학·기술 산업사회의 발전은 대학의 세력 판도를 개편한 데 이어 대체로 특정한 연구 분야의 편중 현상을 낳았다. 즉, 산업의 과학 기술 개발과 산업 지도자 양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시설과 교수, 연구원의 대우 및 학생 장학금 등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기획과 실행이 대학 자체보다도 대학 관리를 좌우한 대기업의 큰손에 의해 짜여졌으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기업가와 그들의 경영 전략의 대학 지배는 대학의 교수상을 바꾸어 놓았다.

한편, 연방정부에 의한 대학 지원은 제2차 대전뒤 더욱 강화되어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일류 대학이 연간 수입의 1/4 내지 약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것은 연구 계약, 학생 등록금의 대부, 특별 '양성계획'의 교부금 등에 주로 쓰여졌다.

정부와 대학의 유대는 거의 표현을 빌리면 기본적인 방침도 없이 맺어진 것이기는 하였으나, "양자의 결혼은 극히 생산적인 결과를 낳았다." 사실 대학은 정부와의 '공생관계'를 대기업과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대학은 과연 그러한 관계를 기뻐만 할 수 있을 것인가.

4. 교수의 즐거움과 보람

미국 고등교육 기관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컬리지와 대학원 및 프로페셔널 스쿨, 즉 전문

대학원이다. 일반교육 중심의 대학을 의미하는 컬리지나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과는 달리 전문 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페셔널 스쿨은 특히 미국의 실용주의적 학풍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호텔경영학을 비롯하여 그 학위의 종류만 해도 1천 6백 종이나 되며, 그것은 지역사회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그 실용주의적 학풍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의 보편적 학자 세계의 일원이 되고자' Ph.D.를 취득하고 미래의 학자를 지망하여 몰려드는 문리학 대학원(arts and science)이 야말로 종합대학을 종합대학답게 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전문대학원이 없어도 명문 종합대학이 될 수 있다. 전문대학원이 하나도 없는 프린스턴이 그 좋은 예이다. 록펠러 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 과정이 없는 종합대학도 미국에는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학자를 육성하는 문리학 대학원이야말로 명문 대학의 전제 조건이다.

문리학 대학원의 학생은 전문대학원의 학생들에 비해 단연 우수하다. 하버드에서 학부 과정의 학생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수마 콤파우데'(Summa cum laude : 최우등 졸업상)를 받는 학생은 매년 졸업생의 5%이다. 1964년의 경우 그 수상 학생의 77%는 문리학 대학원의 학생이었다. 문리학 대학원 교수들의 긍지는 미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77%의 숫자는 이후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즉, 1981년에는 '수마'의 25%만이 문리학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87년에는 약간 회복되어 32%를 헤아렸다. 그간에 '수마'들은 로우 스쿨, 비즈니스 스쿨, 메디컬 스쿨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 학부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일반 교양교육이며 연구자, 특히 교수의 길이다.

그러면 교수진의 어떤 면이 그토록 우수한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를 로소프스키의 저서 『대학— 한 오너의 편람』(1990)을 통해 살펴보자.

그에 의하면 최근(1984~85) 미국 Ph.D.의 57%가 대학 교수이며 75~76년에는 실로 70%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의 교수들은 대체로 자기 직업에 대해 긍정적이며 만족하고 있다. 교수들의 88%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도 역시 대학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우수한 젊은 학도들을 대학 캠퍼스로 유인하고, 기성 교수나 연구자들을 그토록 대학에 붙들어 놓아 두는 것은 무엇일까. 로소프스키는 우선 학원의 매력적인 환경을 든다. 그러나 교수 생활의 장점이 보다 더 큰 이유는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학구 생활이다. 미국의 어느 교수는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고 그 위에 급여까지도 받으니 대학 교사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고 토로하였다. 연구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명예까지도 부여하지 않는가. 연구와 더불어 교육에 만족을 느끼는 교수도 많다. 믿을 만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교수 중 연구에 최대의 관심을 지닌 이는 25%인 데 비해 교육에 보람을 느끼는 교수가 그보다도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런데 교수직의 결정적 장점은, 로소프스키에 의하면, 특히 종신 재직 교수의 경우 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보스, 즉 우두머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방대한 조직 체계를 지니며, 교수는 대학 조직의 관리 아래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구자로서 예술가의 자유를 지닌다. 대학과 학문의 자유를 역설한 홉볼트는 잡무로부터의 교수의 해방을 강조하였거니와 교수는 대개 1년에 8개월, 주당 6~12시간 강의를 맡으면 된다.

교수회의란 어쩌다 열리지만, 하버드의 경우 정족수를 채우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한다. 교수란 공식적으로 과제지는 일을 생리적으로 혐

오하는 인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는 원래 방랑자였거니와 오늘날 적지않은 교수들이 방학때가 되면 해외 나들이를 하는 향공사의 단골 손님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명성과 함께 때로는 적지않은 보수가 딸린 ‘學외의 업무’에 교수들은 또한 공공연히 종사할 수 있다. 자신의 연구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이사가 된 교수도 적지 않으며 회사를 일으킨 교수, 그리고 백화점의 특매장에서 파트 타임의 판매원을 한 하버드의 교수도 있다. ‘학외의 업무’ 기회가 적다고 하는 하버드 문리학 대학원의 교수의 경우도 그들의 약 1/3이 급여의 20% 이상을 학외 활동에서 벌어들인다고 한다. 그러면 교수에게 대학은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는 파라다이스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로소프스키는 미국 대학 생활의 특징으로서 ‘경쟁’을 지적하거니와 그것은 결코 동료 교수들간의 연구 업적 경쟁에 그치지 않는, 대학과 학생들 그리고 매스컴의 관심을 구하고자 하는 등의 경쟁이다. 미국의 대학과 그것을 본받은 여러 나라 대학 교수들은 대개 전임강사는 2년, 조교수와 부교수는 각각 3년 계약의 임기제로서 교수가 되어야만 정년까지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른바 終身 身分保證制(tenure)이다. 교수가 되기까지의 기간은 말하자면 무자비한 테스트 기간이다. 연구 업적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미국의 대학에서는 항상 외부에서 유능한 연구자를 초빙한다.

대학 평가 논의도 교수의 업적주의와 경쟁을 더욱 촉진한다. 평가 방법은 교수진의 자질과 연령, 연구 업적 및 연구 시설 등이 주로 고려된다. 미국의 대학사회에서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식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미국의 대학 평가에서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에서는 하버드가 대체로 수위를 차지하고, 공학에서는 MIT가,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이 정상을 이룬다. 그런데 대학 순위에서 흥

미로운 것은 미국 경제권의 중심 이동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스탠퍼드, MIT 및 UCLA의 급부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수에게 가장 험악한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오직 탐구자로서의 자의식에서 겪어야 하는 이 자기와의 무한대의 싸움은 그 스스로 짊어진 '고귀한 의무'라고나 할까.

5. 학내의 '불균형'과 교단에 서지 않는 교수

그런데 다원적 대학은 교수상에도 새 면모를 더하였다. 대학과 정부 및 대기업 간의 관계는 그것이 '생산적'일수록 대학은 갖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즉, 연구와 교육, 교수의 개인적 바람과 대학 사이의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학, 전문대학원과 학부 간의 날로 벌어지는 '불균형'을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터전으로서의 대학' — 만약 아직도 그러한 대학이 존재한다면 — 에서 대체로 인문학 계열의 교수들은 학부 1,2학년 학생들에게 '초전문분야적인' 교육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학의 대중화, 매스 프로화 앞에서 그들은 좌절을 맛보게 마련이다. 그리고 대체로 전문적 직업을 위하여 대학에 적을 두게 된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대학을 자기의 인간 형성 터전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일런지 또한 의심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의 전문성이 국가 사회의 산업화의 진전에 발맞추어 강조되면서 인문학 분야에서조차 교수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교수일수록 연구를 위해, 학생지도(교육)에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경향이 강해졌다.

가장 좋은 學園이란 대학을 포함하여 훌륭한 교육의 전통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리고 좋은

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정신적 유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그리고 학원의 바람직한 풍토란 특히 교육에 대한 교사의 진정한 열정에 의존한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에 대한 그리고 교수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교육 부재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교육 부재 현상은 대학과 교수의 교육 경시 풍조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도 학문 연구에 그의 모든 것을, 대학과 교수직의 존재 이유를 건 연구 편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많은 교수들은 사실 학생지도나 교육보다도 전문학 연구에 자기자신은 적합한 것으로 믿기를 원한다.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은 전문학 연구자로서 학자의식, 교수의 자의식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이다.

파리에 있는 콜레주 드 프랑스는 프랑스의 학자들이 생애 마지막 파라다이스로서 한번쯤은 꿈꾸는 '학자의 공화국'이다. 그 최대의 매력은 교수들이 거기에서는 매학년 26시간만 강의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옥스퍼드의 올 솔즈 컬리지(All Souls College)의 수십 명의 펠로우(특별연구원)는 학생지도는 물론 강의나 세미나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된다. 왜냐하면 그 컬리지에는 학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1438년 캔터베리 대승정에 의해 백년전쟁에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올 솔즈 컬리지의 펠로우들에게는 기도하는 의무만이 과해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교수들도 연구실이나 서재 혹은 실험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홀로 보내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를 향해 스스로를 개방한 오늘날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바로 대학의 문제요 교수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나 대기업의 자기 목적을 위한 대학 지원이 대학과 학문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각종 지원은 '뒷받침하며 다스

린다'는 원리로 둔갑하고 교수들의 대학내 위상 또한 날로 왜소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좌절감은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교수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외부의 지원은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자기중심적 연구 지원이 대학 본래의 구조에 갖가지 '불균형'을 낳았다 함은 앞에서도 지적하였거니와 학외로부터의 연구비 수혜 기회는 많은 경우 특정 영역의 연구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 결과는 교수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둘로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특정 연구에 대한 편중 지원은 대학을 연구소의 집합체로 만들고 '교단에 서지 않는' (non-teacher) 교수들을 적지않게 낳았다.

교단에 서기를 기피하는, 학생과 마주하기를 원치 않는 교수들은 거의 야유섞인 표현에 의하면 "워싱턴의 정부 관리와 만나는 것을 즐기게 되고 때로는 대학보다도 정부 기관에 충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연구 기업 교수에게 대학은 일종의 '호텔'이 되고 정부 기관이 새로운 모교가 된다."

외부로부터의 혜택에서 소외된 교수들은 적지않이 비판적 자의식을 지니게 되고, 대학과 나아가서는 산학협동을 뒷받침하는 체제에 대해 반항적으로 된다. 그리고 그 혜택을 만끽하는 교수들이 더욱더 체제지향적이 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대중 산업사회는 경제 제일주의의 신화를 낳고 경제의 생산성이라는 잣대에 의해 모든 것이 평가된다. 대학도 그 예외가 아니었으니 학생은 산업사회의 미래의 침병으로서 교육되고 교수 또한 그 논리에 따라 연구하고 관리되고 있다.

교수의 천의 얼굴! 연구자이면서 교육자이어야 하고 그리고 기업의 논리에 대응하고 협력하며 영합하여야 하는 교수의 또하나의 모습. 주 의회나 연방정부 기관에 충실하고 그들의

좋은 협력자요, 학문의 세계와는 상반된 비즈니스나 관료 조직의 세계 사이에서 연구자의 모습과 더불어 조정자요 협력자의 기능도 거뜬히 발휘하여야 하는 교수들. 학생들 앞에서의,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의 표정과는 다른 또하나의 표정을 지어야 하는 오늘날의 교수 群像. 그러면 교수의 진정 바람직한 위상은 과연 무엇일까.

6. 맺는 말

1968년 버클리 분교 교수 평의회는 '버클리의 교육-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학생운동이 몰고 온 대학가의 혼미 속에서 '인간적인 학습과 과학적인 연구의 전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방법'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조직된 동 위원회는 교육의 진정한 부활을 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이상은 연구의 흥분과 권위에 가득한 교육이며 교육의 인간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이다. 우리들의 이상적 교수란 초서(Chaucer)의 뉘르와도 같이 기쁨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인물이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버클리의 교육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양식이다. ... 학식의 필요 근거를 이루는 것은 인간적인 요구뿐이다. ... 대학의 이상은 학문이 교육에 봉사하는 이상이어야 한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적당한 때에 복습한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 온다.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사람들이 몰라 준다고 하여 원망하지 않으니

꿈자라 할 것이다.”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진실의 道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우리 전통사회에서 배움의 길이란 君子에 이르는 길이요 바로 군자의 길이었다. 유럽에서도 지난날 대학인들은 철학적 인식 속에서 학문의 ‘인간적인 의미 연관’을 찾았다. 그때 학문은 교양, 즉 인간의 자기 형성과 동일하였다.

오늘날 대중 산업사회에서 설사 갖가지의 기능이 교수직에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교수의 위상은 연구와 교육에 귀일된다고 할 것이다. ■

(※ 그간 연재된 졸고의 주요한 참고문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Anrich E.(hrsg.), *Die Idee der deutschen Universität*, 1964.
- Bourdier P., *Homo Academicus*, 1984(영역, 1988).
- Coser L.A., *Men of Ideas*, 1970; 이광주 역, 『살롱·카페·아카데미』, 1993.
- Durkheim E., *L'Evolution Pédagogique en France*, 1938(영역, 1985).
- Gause F., *Kant und Königsleeg*, 1974(일역, 1984).
- Education at Berkeley: 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Education*, 1968(일역, 1970).
- Grundmann H., *Vom Ursprung der Universität im Mittelalter*, 1964; 이광주 역, 『중세대학의 기원』, 1977.
- Haskins C.H., *The Rise of Universities*, 1975.
- Hattox R. S., *Coffee and Coffeehouses*, 1988.
- Hauser A.,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1990.
- Hazard P., *The European Mind 680-1715*, 1963.
- Hofstadter R., Metzger W. P., *The Development of Academic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1969.
- Kerr, C., *The Use of the University*, 1995.
- Morison S. E., *Three Centuries of Harvard 1636-1936*, 1961.
- Prohl H. W., *Sozialgeschichte des Hochschulwesens*, 1978.
- Rashdall H., *The Universities of Europe in the Middle Ages*, I · II · III, 1986.
- Riesman D., Jencko ch., *The Academic Revolution*, 1968.
- Reiger F. K., *The Decline of German Mandarins 1890 ~ 1933*, 1990.
- Rosovsky H., *The University - An Owner's Manual*, 1991.
- Rudolph F., *The American College & University*, 1990.
- Schivelbusch W., *Das Paradise, der Geschmock und die Verungt*, 1988.
- Sehelsky H., *Einsamkeit und Freiheit - Idee und Gestalt der deutschen Universität und ihrer Reformen*, 1971.
- Waddell H., *The Wandering Scholars*, 1968.
- Wilson L., *The Academic Man*, 1995.
- 이광주, “미국대학과 대중 산업사회”, 『문학과 사회』, 29호, 1995년 봄호.
- 이광주, 『유럽사회 풍속산책』, 1992.
- 이광주, “파리대학의 성립”, 『지식인과 권력』, 1992.
- 이광주, “학문의 자유 - 베를린 대학의 창립 이념”, 『문학과 사회』, 15호, 1991년 가을호.

이광주/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와 전주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인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식인과 권력』, 『유럽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